

최영진 국립전파연구원장 임명 “창의적 ‘전파연구 허브’로 거듭날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일 제4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최영진 전 미래부 정책총괄과장을 임명했다. 제4대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최영진(사진)원장은 서울대 및 미국 위스콘신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영진 원장은 이날 전파연구원 나주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사에서 최영진 원장은 “연구원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통해 융합과 창조적 역량을 배양해 국립전파연구원이 창의적 전파연구의 허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생태계 소중함 깨닫고 가족간 화합 다져 금호타이어 임직원·가족 ‘만들겟별체험장’ 찾아

금호타이어가 14일 고창군 심원면 ‘만들겟별체험장’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갯벌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는 광주·곡성공장 임직원과 가족 270명(66가족)이 참여했으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갯벌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임직원 가족 및 자녀를 위해 유스퀘어 문화공연 관람, 모터스포츠 체험,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아이들의 스킨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갯벌 체험은 지난해 까지 실시한 ‘차즈 만들기 체험’의 후속활동으로 내년까지 총 4차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임동틀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교사 위한 생생사법마당’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광주시교육연수원과 연계,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을 위한 생생사법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지법 제공>

“함성으로 소통하는 한국 팬들과 만남 설레요”

광주 쇼 아카펠라 페스티벌 호주 ‘The Idea of North’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청량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라는 이름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에서 모인 정상급 아카펠라 그룹들이 빛어내는 달콤한 선율을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호남신학대학교 등 광주시 일원에서 즐길 수 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아시아 아카펠라 페스티벌(2014 Vocal Asia Gwangju Asia Acappella Festival)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THE SOLIST)와 메이트리(may-tree)는 물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호주 출신 4인조 아카펠라 그룹 ‘디 아이디어 오브 노스’(The Idea of North)도 참여한 다.

앤드리 파이퍼(44·Andrew Piper, 베이스), 닉 벅비(42·Nick Begbie, 테너), 셸리 카메론(여·35·Sally Cameron, 소프라노), 나오미 크렐린(여·35·Naomi Crellin, 알토)으로 구성된 ‘The Idea of North’는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가 될 ‘갈라 콘서트 Voice of Asia’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공연을 사흘 앞둔 지난 13일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빛나는 금발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셸리는 커다란 함성과 박수로 가수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한국 관객을 좋아한다고 덧붙혔다. “호주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 왔을



광주 아시아 아카펠라 축제에 서기 위해 광주를 찾은 호주 출신 4인조 아카펠라 그룹 ‘The Idea of North’는 열광적인 한국 팬들과 만날 생각에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열광적으로 응원해주는 한국 관객을 보며 생각이 달라지게 됐어요. 한국 팬들이 저희를 기다려주는 것 이상으로 멤버들도 광주에서 펼쳐질 무대를 기대하고 있는만큼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번잡한 도심 한복판 카페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화음을 맞췄다. 이들은 서로에게 가수이자 관객이 되어주며 작지만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다. 아카펠라가 가진 매력을 묻자 나이 앞머리를 넘기며 답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했어요. 아카펠라라는 악기 반주 없이 사람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만들어내죠. 장소나 악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이

게 아카펠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993년부터 아카펠라를 시작한 이들은 1997년 ‘The Idea of North’라는 앨범을 세상에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캐나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라디오쇼 제목이기도 한 ‘The Idea of North’라는 이름을 짓고 앨범 열 장을 내며 미국 아카펠라협회 최우수 아카펠라 그룹(2004년), 미국 하모니 스위스테인스 우승(2003년) 등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아카펠라 그룹 대부분이 5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들은 네 명뿐이다.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소리를 내는 게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관중과 소통하며 채워간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해외 공연을 펼칠 때마다 현지 가사로 된 노래를 선보인다. 푸근한 인상을 가진 베이스 앤드류는 낮

선 가사를 외우는 게 어렵지만 ‘즐거운 도전’이자 ‘관객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가수와 관객이 악기라는 매개체 없이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아카펠라를 사랑한다는 그는 한국팬들이 한국어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지난 방한 공연 때 ‘아리랑’과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선물했던 이들은 이번에도 이승환의 ‘세상에 뿌리진 사랑만큼’을 준비했다. 인터넷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나오미. 그는 오는 10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시민들을 위해 짐을 담아 노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음악으로 한국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다. ‘The Idea of North’의 무대는 16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금천 청소년 ‘성우 체험교실’

지난 6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상표)이 지난 13일 관내 금천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 이색 직업을 체험해 보는 ‘콘텐츠 창의교실’을 개최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 23명을 빛가람홀로 초청해 진행된 이날 창의교실은 인기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Madagascar)’를 활용해 ‘성우’라는 직업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내용으로 2시간 남짓 진행됐다. 첫 순서는 방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체험 교실 제공 전문 단체인 머스트해브(MUST HAVE)의 강사들이 ‘성우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성우의 발성, 발음 등 훈련 과정을 체험하고 사전에 연습한 대본과 영상을 직접 더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되자 신기해하며 다른 캐릭터도



하겠다고 하는 등 매우 즐거워했다는 것이 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금천초등학교 4학년 이대형 군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표정을 보며 그것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면서 “커서 성우가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며 웃었다. 같은 학교 5학년 박정은 양은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실제로 성우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며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볼 때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올 여름 마지막 바캉스는 호텔 수영장서 맥주 파티

오비맥주, 23일 ‘카스 풀 파티’

대한민국 대표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가 도심 바캉스족을 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를 펼친다.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오는 23일 하루 동안 서울 이태원 해밀튼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바캉스’를 주제로 ‘카스 라이트 풀 파티’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국내 대표 라이트 맥주인 ‘카스 라이트’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야외 수영장에 마련된 메인 무대에서 인기 뮤지션 DJ KOO의 에너지 넘치는 디제잉(DJing) 퍼포먼스와 신인 걸 그룹 타픽의 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스 라이트 제품을 활용한 이색 이벤트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하길영·장영자씨 장남 대경군 오경중(전 병무청·광주 광산구유스호스텔 관장)·이윤선씨 차녀 영화양=23일(토) 오후 2시 부산 해리웨딩홀 2층 컨벤션홀, 광주 피로연 16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 서구 농성동 마리아웨딩스퀘어(구 상록회관)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이화월례회=19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지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율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치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

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모집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자 010-2727-1282.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가장 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 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맛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능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자랑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광정례씨 별세 조문희씨 모친상=발

인 15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전남씨 별세 진철·옥란·옥선씨 부친상=발인 15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광경환씨 별세 규호(광주문화재단 문화관장)·현근·효근·은경씨 부친상=발인 16일(토) 광주역장례식장 3호실 062-264-4444.

| | |
|--|---|
| 謹 尙加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 |
| 101호 하이연숙 님(여/75세) 子/子婦 : 안철영/김희자, 안철수/최미영 女/婿 : 안숙희/이철호, 안숙환/강광식 *발 인: 8월 1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 102호故나명희 님(여/52세) 子 : 김 권 김 철 女: 김 민 夫/妻 : 김명단 *발 인: 8월 16일 *장 지: 순창성당 *연락처: 227-4386 |
| 401호 고유광동 님(남/78세) 子/子婦 : 유광우/김희자 女/婿 : 유은정/신세훈, 유은아/신수길 未亡人 : 임정자 *발 인: 8월 16일 *장 지: 천주교 부활의동산 *연락처: 227-4383 | 402호故양철순 님(남/86세) 子/子婦 : 방영식/여선희, 방정현/김정란 女/婿 : 방수희, 방수경/유원호, 방수현/정명규 *발 인: 8월 15일 *장 지: 곡성 목시동선영 *연락처: 227-4314 |
|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 |